

| 22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763.51 | ↓ 코스닥 | 809.96 |
| | (-31.95) | | (-31.95) |
| ↓ 금리 (미국 9년) | 3.071 | ↑ 환율 (원/달러) | 1388.20 |
| | (-0.003) | | (+1.50) |



尹 정부, '트럼프 2기' 대비 對美외교 '플랜B' 시급

美 바이든 사퇴 '대혼돈'

尹 정부, 바이든과 우호관계 유지
트럼프 외교노선, 바이든과 달라
워싱턴선언 등 한미동맹 '불안감'
대통령실 "美와 긴밀 협력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
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
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
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
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
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
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
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
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
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꽃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
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

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
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
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
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
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
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
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
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
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
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
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
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
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
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
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
통령은 "나는 김정정과 잘 지냈다"고 지
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
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 한 여성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고
마움을 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
든 대통령은 대선을 107일 남기고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AP/뉴시스

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
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
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
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
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
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

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
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서울 인구 감소분 전국의 64% 달해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
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
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
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 들었다. 4년7개
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
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인구 44만명 늘었지만
서울·부산·대구 감소 상쇄 역부족

경기 인구 감소 전환 시점부터
총인구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듯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
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
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
나마 줄였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가 44
만명 늘어났음에도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
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인구 감소를 견
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
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
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 등을 인
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
험 지역이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
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김병환 "금투세 폐지해야... 시장 교란 우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투세 대상 투자금 150조 수준
해외로 빠지면 韓시장 동력 잃어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
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
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
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

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
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
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
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
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
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
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
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
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
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과도하게 부
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
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
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5%... 총선
15주만에 30% 중반 진입 /사진 뉴시스
▲ 체코 정부 원전사업에 '한수원' 선정...
윤 대통령, 원전생태계 강화'

▲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이치' 조사는
란... 대통령실 "특혜 주장 과도"
▲ 군, 북 오물풍선 500여개 식별... 대북
방송 이틀째 전면 시행



▲ 공군 11전비, 적 무인기 공격 대비 군·
경·소방 합동훈련
▲ 이 방위위원장 후보, 대전MBC서 급여
6억 받는 동안 영업익 90% 감소 /사진 뉴시스

현대차·LG 등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 민관 투자액 2.5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
산업부, 153개 기업·기관 참여

2028년까지 200개 사업 발굴·추진
올해 추진 프로젝트 오는 9월 확정
선도 프로젝트 과제당 100억 지원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제조공정에 AI(인공지능) 자율제조 기술이 도입된다. 관련 민관 투자액은 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 관련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5년간 10조 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주요 제조기업 등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정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참여 기업 매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액을 합산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 대표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이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

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10개 과제에 총 213개 수요가 접수돼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계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생산준비 단축과 생산속도·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민첩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축적된 자율제조 분야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율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전체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은 20% 이상, GDP는 3%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체코, 인력양성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기
尹 대통령, 체코 특사파견 검토 지시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안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

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나가기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연,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온·장마에 채소값 '굉충'

장마가 시작된 뒤 일부 농가의 침수 피해로 상추와 수박 등 채소와 과채류 가격이 올랐다. 적상추 100g 가격이 1주일 만에 56.3% 뛰어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깻잎과 시금치, 풋고추 등도 모두 1주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수박과 참외, 토마토 등 여름철 대표 과채류도 출몰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 상추 등 일채소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

장마가 시작된 뒤 일부 농가의 침수 피해로 상추와 수박 등 채소와 과채류 가격이 올랐다. 적상추 100g 가격이 1주일 만에 56.3% 뛰어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깻잎과 시금치, 풋고추 등도 모두 1주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수박과 참외, 토마토 등 여름철 대표 과채류도 출몰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 상추 등 일채소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

"전국민에 일률적 25만원 지원,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반대 의사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 기극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

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국내 최대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경남 밀양서 336MW 용량 첫 가압

한국전력이 국내 최대인 336MW(메가와트)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면서 전력계통 안정을 통한 미래 전력 설비 선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지난 19일 경남 밀양에 자리잡은 나노산단 내 북북변전소에서 336MW 용량의 ESS를 최초로 가압했다고 22일 밝혔다. ESS란 생산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송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작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6개 변전소(영주·함양·예산·영천·신남원·부북)에서 시행된 총용량 978MW ESS 건설 사업 중 마지막 가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용량이다.

이번 사업은 준비부터 설비개선 및 최종 가압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 ESS 대표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ESS 설비 개선에 앞장서 기술 향상을 견인했고, 공청회와 현장설명회를 활용한 대내·외 다각적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가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 전원연계에 기여할 수 있고, 최대 1GW(기가와트)의 발전 제약 완화가 가능해 전력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전은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향후 5개 변전소(소룡·농공·나주·선산·신영주) 300MW ESS 구축 추진 등 전력 계통 안정화와 ESS 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ESS와 같은 신사업·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면서 "안전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경계 없는 혁신가... 글로벌 창업·경영 패러다임 제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과감한 혁신과 현장중심경영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범(汎)롯데가를 창업한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현장의 중요함과 경영의 혁신을 강조했던 신격호 명예회장은 껌장사로 시작해 롯데그룹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이어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유통산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 유통뿐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성장시키며 사실상 대한민국 ‘문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맨손으로 롯데 창업... 성공신화 국가·업종 등 한계 넘어 신시장 개척 세계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건립

◆껌장사로 시작해 국내 최대 식품회사로 자리잡기까지

신격호 명예회장은 1944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에서 껌 장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껌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롯데 시대가 열린다.

신 명예회장은 1948년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한다. 롯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인 ‘샤롯데’의 애칭인 ‘롯데’에서 따왔다.

이후 신격호가 확장한 사업이 성공궤도에 오르면서 1959년 롯데상사, 1961년 롯데부동산, 1967년 롯데아도, 1968년 롯데물산 등 유통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간다.

이후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롯데그룹의 식품역량을 키우는 데 속력을 낸다.



젊은 시절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한 뒤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 롯데리아 등을 잇달아 출범시켰다.

뿐만 아니라 1973년 호텔롯데·롯데전자·롯데기공, 1974년 롯데산업·롯데상사·롯데칠성음료, 1975년 롯데디자인츠, 1978년 롯데삼강, 롯데건설, 롯데햄, 롯데우유, 1979년 롯데쇼핑, 1980년 한국후지필름, 1982년 롯데캐논·대흥기획 등까지 설립하며 유통을 넘어 문화관광으로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나간다. 이 시기에 롯데그룹이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그룹은 특히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기에 롯데그룹은 동남아와 중국, 미국 등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도 속도를 냈다. 2006년 롯데쇼핑이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혁신, 현장 강조한 신격호 명예회장... 안전지향적 경영사

“망하더라도 제일 늦게 망해야 한다.”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자수성가로 이뤄낸 기업이다. 신철호 전 롯데 사장,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등 형제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데에는 신 명예회장이 때때로 강조한 혁신 경영을 비결로 꼽는다.

신 명예회장은 안전지향적 경영을 최우선시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외유내강 경영인’으로 알려진 이유이기도 하다.

신 명예회장이 ‘짚물경영’, ‘현찰경영’으로 유명한 만큼, 확신하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반면 모르는 사업에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이같은 선택과 집중 경영이 국내 식품, 유통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신격호의 숙원사업 ‘롯데타워’

“서울에 세계 최고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짓는 것이 여생의 꿈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삼았다.

롯데월드 개관 직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제2롯데월드를 구상, 잠실 일대에 글로벌 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전세계 최고층 순위 5위로, 8만6000㎡ 부지에 약 4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987년 사업지 선정 후 2010년 11월 착공해 연 인원 500만명 이상이 투입돼 준공까지 만 6년 3개월, 2280일이 걸렸다.

롯데월드타워가 30여 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성, 항공 운항 영향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반 안정성과 활주로 각도 변경 등을 관련 부처와 완만히 합의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롯데월드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에 555m에 달하는 빌딩이다. 타워 무게는 75만톤에 달한다. 총 연면적인 8만6000㎡ 부지는 축구 경기장 115개를 합친 크기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의 한국 본사로 사용되고 있다. 오피스 공간에는 롯데지주, 롯데캐미칼, 롯데쇼핑 등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롯데 에비뉴엘에는 롯데마트, 하이마트, 시네마 사업장이 입주해 있고 호텔롯데와 호텔(시그니엘)에는 면세점이 쇼핑물에는 공실 없이 2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방문자수는 5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신격호 정신’ 뒤밧래

“나에겐 늘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다. 돈을 버는 것만이 내가 추구하는 전부가 아니고 극복할 일들이 있다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낀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말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결과가 일본에서 발표돼 이목이 쏠렸다.

현장에서는 제일교포 사업가로 일본에서 사업을 먼저 일군 후 다시 고국인 한국에 재투자해 이를 제조·유통·화학 분야까지 넓힌 과정에서 신 회장이 한계에 부딪혔

을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했던 행동 원칙을 높게 평가했다.

또 국가, 조직, 산업 분야 등에서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펼쳤던 혁신적 사고’가 신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그룹은 정신적 지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철학과 신념을 계승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공익사업을 위해 롯데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재단에는 장학재단·삼동복지재단·복지재단이 있다. 해당 재단은 1983년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된 재단이다.

해당 재단에서는 소외계층, 장애인, 청년기업가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롯데장학재단은 ‘제1회 샤롯데문학상’을 개최했다.

‘제1회 신격호 샤롯데문학상’은 롯데그룹 창립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국문화와 문화에 대한 열정을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샤롯데’에서 영감을 받아 그룹명 ‘롯데’를 세운 신격호 회장의 이름을 샤롯데문학상에 담아 뜻깊은 한 소설가의 꿈을 기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초 롯데캐미칼, 정밀화학, 이네오스화학, 백화점, 마트, 호텔, 시티호텔, 자이언츠, 건설, 컬처웍스 등 롯데그룹 14개 계열사를 대표하는 임직원 30명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중심경영... 사업내실 집중 롯데그룹, 글로벌 기업 자리매김 “망하더라도 제일 늦게 망해야”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소외계층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신격호 롯데 울산 장학금’ 전달식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중고교생 50명과 울산 예체능 학생 30명에게 총 8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 지역별로 8000만원씩, 총 4억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물품지원사업으로, 기존 지원했던 지역인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에 이어 북구, 동구 지역을 추가해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증식 행사에 참여한 울산 지역 구·군 지자체장과 만남을 통해 물품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이후 지원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는 롯데지주(주)다. 롯데그룹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총 93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장사는 10개사, 비상장사는 83개사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그룹을 설립한 1967년부터 약 57년이 지났음에도 둘째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전히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전무가 최근 경영선에 뛰어든 가운데 3대가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신격호 정신’이 빛을 내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밥캣 합병... “주주보다 그룹 이익” 반발 확산

밥캣, 로보틱스에 100% 자회사 편입 합병 방식·주주 권익 등 논란 예상
경제개혁연대, 일반주주 피해 우려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 개편” 지적

두산그룹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한 회사로 합병한다. 다만 두 회사의 합병을 둘러싼 잡음은 적잖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연내에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자회사인 밥캣을 로보틱스로 넘기고, 내년 상반기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두산밥캣의 합병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산은 밥캣과 로보틱스가 합병할 때 행정 절차 등으로 오랜 시간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밥캣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4월 출시한 F&B 전용 협동로봇 E시리즈 이미지.

앞선 지난 11일 두산그룹은 사업구조를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소재 등 3대 부문으로 재편하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사업회사(준속법인)와 신설 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투자법인이 두산밥캣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신설투자법인과 합병하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완전 자회사로 두는 사업구조 재편안에 대해 각 회사 이사회에서 통과했

다고 밝혔다. 9월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두산에너지빌리티가 46.06%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지분은 13.8%에서 42%로 오른다.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두산의 지분은 68%에서 42%로 줄어든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은 저평가, 두산로보틱스는 고평가돼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밥캣의 주



두산밥캣의 3톤급 20kW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두산밥캣

주 권익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알짜 계열사인 두산밥캣을 적자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에 편입시키는 방식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밥캣이 사회가 선택한 지배권 이전 방식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두 회사의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보다 그룹의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합병은 일반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격 협상을 통해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직접 매각해야 일반 주주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만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두산에너지빌리티 이사회는 두산로보틱스에게 두산밥캣 주식의 직접 인수를 요구하고 두산밥캣 이사회는 주식 교환이 아닌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 두산밥캣 잔여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금이라도 두산로보틱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철회하고 지분 직접 인수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두산밥캣을 떼어내면서 차입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인적 분할되는 두산밥캣 투자법인에 차입금 7200억원을 넘기고, 추가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모두 1조2000억원의 차입금을 줄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합병에도 성과급 별도 운영... “이중 수혜는 없을 것”

합병 후 성과급 잠재적 갈등 방지
각사의 모든 제도 유지방안 유력

SK온이 세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대대적인 합병을 진행하는 가운데 성과급은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합병 후 성과급을 둘러싼 잠재적인 갈등과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터 합병안을 의결했다.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SK온과 SK엔터의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SK온이 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다만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

널, SK엔터의 합병에는 여전히 내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그룹 재편의 중심인 SK온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는 2026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SK온은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특히 SK온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합병 대상인 회사의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사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며 “합병 이후에도 각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기

존의 성과급 제도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후에 성과급과 주식 보상 문제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SK온은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 중이다. 합병 이후 SK온의 상장이 이뤄지면 합병사들에게 성과급과 더불어 주식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진행 여부가 의심돼 이에 따른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다.

SK온 관계자는 “합병되는 SK엔터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경우 연말 성과급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받고 있기에 이중 수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서도 내부 조직 구성원들과의 갈등은 장애물로 꼽혔다. 그간 실적이 좋았던 SK E&S가 이번 합병으로 인해 성과급 축소,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병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정부분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염두도 있기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준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CC 업계, 항공기 연료 절감 등 ‘탄소 감축’ 앞장

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법안 내달 시행
A321neo 도입 등 연료효율 개선 박차

국내 저비용항공(LCC) 업계가 수요 회복에 힘입어 노선 확장에 나선 가운데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분주하다.

22일 LCC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 감축 규제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국제공항국제선의 2024년 상반기 여객 실적은 340만8517명으로 2019년 상반기 352만8765명에 근접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탄소 배출량 의무를 지키기 위해선 지속가능항공유 도입이나 연료 효율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 공포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8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라 5.7톤 이상의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연간 1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항공사는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의무 이행자로 지정된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의 주요 LCC들이 의무 이행자에 속한다.

법안은 항공기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 이행자에 속하는 항공사들은 국제선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등 탄소 배출량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탄소 감축에 적극적인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연료 효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존 기재 대비

연료 효율이 15~20% 좋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항공기 조종사 탄소 저감 TF 구성과 항공기 브레이크 경량화 등의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연료 효율이 높은 A321neo 항공기 비중을 확대”한다며 “녹색 운항 캠페인 및 단축 항로 개설·이용 등으로 항공기 연료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부터 항공기 연료 절감 솔루션 프로그램인 ‘퓨얼 에널리틱스’를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4.3%의 연료 효율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연료 효율 인식 개선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대성 기자 iunm@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통화정책 효과 약화”

한은, 소통 통해 전망 불일치 해소

아파트 값이 아무리 비싸도 내일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혼까지 팔아도 아파트를 살 것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누구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아파트 값이 오를지 내릴지 불확실한 경우다. 이 경우 물가를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고금리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외려 물가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1년 간 물가방향을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일치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는 시장참가자(전문가) 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산포도를 말한다.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견해 차가 클수록 불일치가 높다는 의미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망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나타난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효과가 한국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2006년 1월~2023년 11월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수준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AI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韓 '패스트트랙 폭로' 변수 될까... 나·원·윤, 막판 당심공략

(가나다순)

국민의힘 전당대회 D-DAY

한동훈, 논란에 몸 낮추는 모습
나경원, 부산·대구 찾아 지지 호소
원희룡, 울산·경남서 '원팀' 강조
윤상현, 소통관서 국회 현안 집중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무난히 당 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지난 19~20일에 실시했고 총 투표율 40.47%를 기록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 결과를 80%,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엔 1위 득표자와



나경원
당 대표 후보



원희룡
당 대표 후보



윤상현
당 대표 후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터져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며 당 대표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사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방송토론

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해 선거운동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저녁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여당 측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껏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22일 경기도 포천과 이천을 찾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만나 수도권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막판 부산과 대구를 찾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많이 깨

지신 것 같다"며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졌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를 통합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울산과 경남을 찾아 당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원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특검 문제, 동지 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류 'K-A 가디언즈' 시사회 참석을 취소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다며 국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노경필 인사청문회, '김건희 리스크' 두고 與野 공방

(대법관 후보자)

野, 김 여사 주가조작 공범여부 질문에
노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
與 "법관으로서 자질·능력 검증해야"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



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

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

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

여야 지지도 격차, 8.9%p 벌어져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정당 1.3%, 무당층 7.0%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4.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도가 1.8%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26.3%의 지지도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3%포인트가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도 38.8%를 기록해 5.6%포인트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4.9%의 지지도로 4.7%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1.7%포인트가 올라 42.7%를 기록했다. 30대에선 4.5%포인트가 올라 37.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도 2.2%

가 올라 28.6%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5.3%포인트가 하락한 33.4%, 부산·울산·경남에서 5.0%포인트가 감소한 27.0%, 인천·경기에서 1.6%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5.7%포인트가 하락한 32.9%, 30대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3.4%, 40대에서 2.5%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2506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국정평가는 34.5%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박태홍 기자

강민수 "상속세 개편, 논의할 시기 됐다"

(신임 국세청장)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서 입장 밝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

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4년 현재 (아파트) 한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채(값)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iM뱅크, 전국영업 시동... 강원에 1호점 연다

내일 '거점 점포' 원주지점 개점
뉴 하이브리드뱅크 가능성 전초전
연내 2개 점포 추가 개설 추진
구로·동탄 등 산업밀집지역 고려



대구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뱅크 제2본점에는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도 소재해 있다. /iM뱅크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본격적인 전국 단위 영업에 나선다. iM뱅크는 오는 24일 개점하는 1호 '거점 점포' 강원도 원주지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충청도 등 전국에 점포를 설치하고, 지역 내 전문성이 높은 현지 인력을 확보해 지역 중소기업 공략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오는 24일 시중은행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점 점포'인 원주지점의 영업을 개시한다. iM뱅크는 올해 안에 원주지점에 이어 2개의 거점 점포를 추가로 개설한다.

iM뱅크의 '거점 점포'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금융 특화 점포다.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상품을 공급한다.

이달 초 iM뱅크는 원주지점의 지역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강원지역 금융기관에 2년 이상 근속한 인력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또한 지점 책임자로 외부 출신인 정병훈 전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을 영입하는 등 관행을 깬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아울러 중·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업 대출 평가에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대안 정보의 복합 평가 과정도 도입한다. 원주지점은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 금융전문가(PRM)'의 강원도 내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지난 2019년 도입한 'PRM'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지점장급 퇴직자를 영입해 단독 영업이 가능한 1인 지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임명된 각각의 PRM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지난해 iM뱅크 소속 PRM이 판매한 대출액 규모는 3조1300억원으로 iM뱅크의 전체 기업대출액인 33조3150억원의 9.4%를 공급했다. 또한 PRM 1인당 기업 대출 취급 규모는 일반 임직원의 5배에 육박한다.

iM뱅크가 올해 들어 수도권·충청-

강원 지역 영업을 위해 신규 채용한 PRM은 50여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iM뱅크 소속 PRM 총원인 66명의 75%에 달한다.

이는 고정비용 지출이 큰 점포 설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현지 사정에 밝은 PRM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높은 금리 경쟁력을 갖춘 특화 상품을 공급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원주지점의 성패는 '뉴 하이브리드뱅크' 전략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영업 전략으로 인터넷은행의 금리 경쟁력과 지방은행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함께 갖춘 '뉴 하이브리드뱅크'를 제시한 바 있다.

iM뱅크는 원주지점에 이어 거점 점포를 설치할 장소로 구로·동탄 등 수도권 산업 밀집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지역별 거점 점포 개점 계획은 앞서 발표했던 계획대로 충청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추진 중"이라며 "원주지점 바로 다음으로 문을 열 거점 점포로는 구로·동탄 등 수도권 지역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사, 올 상반기 리볼빙 7.3조... 잔액 2500억 뚫

당국, '최소결제' 문구금지 등 규제
삼성카드, 1192억 줄어 전체 46%

올 상반기 카드사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의 명칭을 손질한 금융당국의 해법이 통했다는 평가가. 반면 카드론 잔액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합산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 2563억원이다. 연초(7조 5153억원) 대비 2590억원 줄었다. 리볼빙서비스란 카드대금의 최소 약정비율을 상환하면

납부 기간을 1개월 미루는 기능이다.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활용되지만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 중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삼성카드다. 올 상반기 1192억원 줄이면서 6월말 1조 1726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업계 전체가 줄인 잔액의 46.0%를 차지한다. 리볼빙은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만큼 상환이 까다롭다. 건전성 확보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카드 다음으로 리볼빙 잔액이 크게 줄어든 곳은 롯데카드다. 같은 기간 690억원 감소한 1조 183억원이다. 매달 115억원씩 줄인 셈이다. 이어 신한

카드와 하나카드가 340억원씩 줄었으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173억원, 86억원씩 감소했다.

이처럼 리볼빙 잔액이 감소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최소결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연간 리볼빙 잔액이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급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홍보 문구와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용카드 상품에

가입할 때 리볼빙 서비스 가입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고지의무를 지킨 만큼 일각에선 과도한 조치란 목소리도 등장했다.

내친김에 업계에서는 리볼빙 누적 잔액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규가입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기를 늦추거나 최소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면서다. 연체율 해소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리볼빙 관련 마케팅을 축소하는 행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 전업카드사 8곳의 리볼빙 금리 평균은 연 17.14%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적용한 금리는 연 18.86%로 전체 평균 대비 1.72%포인트(p) 높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전면적인 내부통제 재점검 필요"

부산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방성빈 은행장 '주인의식' 강조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하반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동시에 금융 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인식전환과 전면적인 내부통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방 행장은 지난 19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의 본질은 신뢰인 만큼 성숙하고 병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른 은행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

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하는 의미에서 '흔들림 없는 회복력 : 불확실성을 넘어서'를 주제로 지난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 및 영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반기 경영전략 슬로건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담하게, 후반전에 전력 질주하여 성장회복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대반전(大反轉)'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영전략 방



BNK부산은행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향인 '수익 중심의 지속가능한 내실 성장'을 위해 건전성 관리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지역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역에서의 든든한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아웃바운드 영업 조직 강화를 통해 영업권역을 넓히는 등 역외지

역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실용적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에는 실시간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방성빈 은행장이 직접 답변하는 등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카드 News

DB손해보험 초등생 650명 대상 안전리더 캠프 성료

DB손해보험이 안전리더 캠프를 개최했다.

◆ '프로미 119 안전리더 캠프'

DB손해보험은 지난 19일 태백시(365세이프타운), 강원소방본부와 공동 운영하고 소방청이 지원하는 '프로미 119 안전리더 캠프'를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 365세이프타운 및 강원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65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안전 캠프는 산물체험, 테러 체험, 화재진압체험 등 다양한 안전 체험 활동으로 운영된다. 집라인 체험과 챌린지 월드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NH농협손해보험 다문화 가족 여성들과 여름 보양식 만들기

NH농협손해보험이 여름 보양식 만들기를 실시했다.

◆ 다문화 가족과 한식 만들기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만들기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장경민 NH농협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사장과 헤아림봉사단,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체험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국대학교 인액터스 팀('토버스(TOWBUS)' 프로젝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 인액터스 코리아 국내대회 지속 후원

현대해상이 '인액터스 코리아 국내대회'를 후원한다.

◆ '인액터스 코리아' 지원

현대해상은 자사가 후원하는 '인액터스 코리아 (Enactus Korea)' 국내대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 및 교수,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 사회적기업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인액터스(Enactus)는 전세계 32개국의 대학생들이 학교내 팀을 이뤄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다.

/김주형 기자 gh471@

조선업계, 17년만에 '슈퍼사이클' 노사 이익공유 등 리스크 상존

임단협 둘러싼 노사 갈등 격화 파업시 생산차질 등 실적 영향 "위기감 여전... 절충안 찾도록 노력"

국내 조선업계가 17년여 만에 '슈퍼사이클(대호황)'에 진입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1963~1973년을 1차, 2002년 2007년을 2차 슈퍼사이클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이 3차 슈퍼사이클로 보고 실적 호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임단협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생산 차질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신뢰 악화에 따른 수주 감소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 마형인 HD현대중공업은 파업의 기로에 섰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

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7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7월 19일 중앙쟁의대책위원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4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정년 연장 65세(임금피크제 폐지)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놓고 사측과 맞서고 있다. 올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을 끝내고 '슈퍼사이클'을 맞은 만큼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지난 15일 7시간가량 총파업을 실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

원은 700여명에 달한다. 한화오션 노조는 이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86%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시키고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사측이 진전된 제안을 내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노사는 특히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할 당시 사측은 성과급을 RSU 방식으로 300%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추후 임단협 요구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오랜만에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았지만 노사 갈등으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며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B787-10

대한항공, '드림라이너' 보잉 797-10 운용

인천발 도쿄 나리타행 노선 투입

대한항공이 향후 차세대 기단의 한 축을 맡을 보잉 787-10을 도입하고 오는 25일 인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한 787-10 기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는, 현존하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모델이다.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항공기이기도 하다.

'드림라이너'라는 애칭을 가진 787 시리즈 중 가장 크다. 동체 길이가 68.3m로 보잉 787-9 대비 5m 가량 늘었다.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기존 항공기 동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해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높인 게 특징이다. 그 결과 기존 동급 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 소모율이 20% 이상 개선됐고 탄소 배출량 또한 20% 이상 감소했다.

향후 기내 엔터테인먼트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좌석은 프레스티지클래스 36석, 이코노미클래스 289석 등 총 325석으로 구성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0대의 787-10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엘티엠셀즈,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 중단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법인)

전기차 캐즘 등 업황 적극 대응 "수요에 맞춰서 투자속도 조절"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합작법인 엘티엠셀즈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연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구축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공장은 총 5개 라인 규모로 구축될 계획이었었는데, 현재 2개 라인에만 일부 장비 반입이 이뤄진 상태로 나머지 라인에 대한 일정이 보류됐다.

당초 계획은 내년 초 1단계 양산을 시작해 향후 연 생산 규모를 50GWh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 엘티엠셀즈 오하이오 1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약 70만대가량 생산하는 양이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불황을 겪자 투자 속도 조절

을 결정할 것으로 해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수요에 맞춰서 전반적인 투자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재개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이달 초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투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도 착공 두 달 만에 건립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 각광

20만 세대 '스마트싱스 프로' 적용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업간 거래(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가 2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싱스 프로를 아파트 단지에 특화한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지난 2020년 11월 삼성물산 래미안 리더스원을 시작으로 총 248개 단지, 20만 세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건설사,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많은 건설사와 협력해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집 안의 가전제품, 조명, 냉·난방기, 환기 장치, 전동 블라인드·커튼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 정

보, 무인 택배 관리, 방문 차량 등록 등 편의 정보까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

실시간 전기요금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기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알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도 가능하다.

특히, 'AI 절약 모드'로 동작할 기기를 미리 설정해 두면 선택 옵션에 따라 'AI 절약 모드'를 알아서 실행한다. 전력 사용량 절감 알림(DR발령) 시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혜택을 받는 '에너지 절약 미션' 등도 제공한다.

집 도면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3D 맵 뷰'를 사용하면 공간별로 스마트싱스와 연결된 가전 상태는 물론, 조명·온도·공기질·에너지 사용량까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부문 수주 1조 돌파

한국중부발전 5800억 계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가스터빈 부문에서 1년 만에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 이달에만 K-가스터빈 제작부터 서비스, 발전소 건설을 모두 수주한 데 힘입어 초대형 가스터빈 관련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중부발전과 5800억원 규모 한안복합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안복합발전소의 파워블록을 설계부터 주기기 제작·공급, 시공까지 EPC로 일괄 수행해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

이다. 발전소에서 파워블록(Power Block)은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380MW(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비롯해 스팀터빈, 보조기기 등을 함께 공급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 10일 한국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로, 7월에만 K-가스터빈의 제작·서비스·건설을 모두 수주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신복합 주기기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년간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포함한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지난해 380MW급 K-가스터빈을 도입한 한국중부발전이 다시 한번 K-가스터빈을 선택해, 관련 건설공사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계약으로 발전소 건설 역량과 주기기 제작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발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르노코리아, '뉴 르노 QM6' 연식 변경

2025년형 SP 모델 출시

르노코리아가 QM6의 연식 변경 모델로 국내 중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누적 판매 대수 25만대의 스테디셀러 중형 SUV '뉴 르노 QM6'의 2025년형 SP 모델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뉴 르노 QM6 2025년형 SP는 새로운 세틴 크롬 엠블럼 적용과 함께 전면 부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데코 디테일 등 강화로 업그레이드를 마친 최신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QM6 특유의 합리적 구성은 더욱 극대화했다.

뉴 르노 QM6의 2025년형 SP는 가



르노코리아 뉴 르노 QM6 주행 모습.

솔린 모델 ▲GDe RE, LPG모델 ▲LPe RE ▲LPe LE, QUEST 모델 ▲2.0LPe 밴 등 트림 구성을 고객 선호도 기준으로 4가지로 재정비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양성운 기자 YouTube

‘넷플릭스 잡았다’... 토종OTT, 스포츠·영화 등 콘텐츠 흥행

넷플릭스, 지난달 가입자수 16% ↓
베이직 요금 없애고 공유계정 단속
티빙-쿠광플레이, 월간 이용자수 ↑
스포츠 중계·드라마 등 콘텐츠 영향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업계 1위 넷플릭스와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넷플릭스가 구독료 부담을 확대시키는 사이 티빙과 쿠광플레이는 스포츠 중계권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했기 때문. 특히 넷플릭스가 공유계정 단속에 나서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독자도 절반이 넘으면서 국내 OTT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온라인 서비스 조사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6월 OTT별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보면, 티빙은 739만9000명으로 넷플릭스(1096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티빙은 MAU가 27% 증가한 반면, 넷플릭스는 16%나 감소했다.

넷플릭스의 하락세는 올해부터 시작됐다. 3월에는 전달 대비 무려 79만명 가량 감소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조만간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수는



넷플릭스 광고 지원 요금제 안내문.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가 구독료 부담 확대 기조에 돌입한 데 이어 콘텐츠의 다양성도 줄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지난19일(현지시각)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를 완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고 요금제로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 단속에도 나섰다. 이에 구독자들이 해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OTT 서비스 변화에 대한 이용자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 이용자 63% 이상이 공유 계정이 금지될 시 OTT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내 OTT인 티빙과 쿠광플레이의 가입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티빙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사용자 수는 6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5% 증가한 셈이다. 이는 스포츠 중계는 물론 최근 공개한 콘텐츠가 연이어 성공을 거둔 것이 구독자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티빙이 생중계부터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영화, 예능 등 신규 콘텐츠를 마련했다. /티빙

tvN과 동시 공개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가 크게 흥행한 데 이어 오리지널 콘텐츠인 ‘이재, 곧 죽습니다’ 등도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

쿠광플레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월간 이용자수는 779만 8282명으로 자체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466만 ▲5월 468만 ▲6월 531만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702만명, 654만명, 663만명 등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성과는 스포츠 중계권이 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광플레이는 MLB 공식 개막 2연전을 국내 팬들에 선보인데 이어 꾸준히 해외 스포츠 명문 구단을 초청해 이벤트 경기를 개최해왔다.

이번 쿠광플레이 시리즈에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와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을 찾아 국내 팬들 앞에서 대결을 펼친다. 또 오는 31일과 8월3일 열리는 ‘2024 쿠광플레이 시리즈’ 하프타임 무대의 주인공으로 각각 트와이스와 뉴진스를 확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 첨단항공엔진 등 韓 우주 기술력 알린다

26일까지 英 ‘판버러 에어쇼’ 참가
통합 전시관·스페이스존 등 운영
SAR 위성 등 항공·우주 역량 전시

한화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력을 선보인다.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AESA레이다. 소형 SAR 위성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한화는 22~26일 영국 런던 근교의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약 6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룹사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에어 존과 ‘발사체-관측위성-위성통신 서비스’ 등 종합 우주솔루션을 제시한 스페이스 존을 운영한다.



22~26일(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한화 통합전시관 전경. /한화

‘에어 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된다. 첨단항공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5000파운드(lbf)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AESA레이다도

선보인다.

‘스페이스 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넷 원웹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SAR위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성 고객을 모집하고 국내 민간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까지 발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양성준 기자 ysw@

LGU+ “육아 문제 AI로 해결하세요”

‘익시 육아 매니저’ 출시

LG유플러스의 자체 개발 AI(인공지능) ‘익시(ixi)’가 이제 육아정보를 학습해 아이 양육까지 돕는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육아 상담 서비스 ‘익시 육아 매니저’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모의 자녀 양육 고민 해결을 돕는 앱 ‘부모나라’ 이용자들은 육아 전문 AI의 답변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육아 정보를 찾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부모나라는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 나라’의 핵심 고객인 영유아 부모들을 타깃으로 육아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부모나라는 육아와 놀이 고민을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정식 출시 후 10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에 추가된 익시 육아 매니저는 실시간으로 AI가 육아 상담을 진행해

준다. 부모가 실시간으로 육아나 교육 관련 질문을 올리면 익시 육아 매니저가 빠르게 답변을 함으로써 육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징징대는 아이에게는 어떤 훈육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면, 익시 육아 매니저는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에 출연했던 육아전문가 노규식 박사의 솔루션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가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부모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라며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LG유플러스는 유명 전문가의 답변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육아 상담소’도 선보인다. 부모가 고민을 담은 사연을 제출하면 이용자의 프로필과 성향 진단 결과를 참고해 노규식 박사가 영상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세계 최초 IDC용 초전도 솔루션 출시

LS전선·일렉트릭

도심서 신규 변전소 없이 전력 공급

LS전선과 LS일렉트릭이 데이터센터(IDC)용 초전도 사업에서 협력한다.

LS전선은 LS일렉트릭과 함께 세계 최초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및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초전도 솔루션은 22.9kV(킬로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

력을 송전할 수 있어, 도심에 신규 변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블 시스템의 공급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등을 공급한다.

기존 변전소를 대체하는 초전도 스테

이션은 변압기 없이 분배기만으로 구성되며, 기존 변전소의 약 1/20 규모로 설계할 수 있어 공사 비용 절감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 전류 발생 시 빠르게 반응하여 단락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IDC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손실 위험도 줄임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양사는 초전도 시스템이 신규 IDC 건설 시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전력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여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기술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AI·AR로 파리올림픽 선수단 응원

‘에이닷’ AI 포토 서비스 이벤트

SK텔레콤은 2024 파리 올림픽 시기를 맞아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접목했다.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부터 대한체육회를 공식 후원 중인 SKT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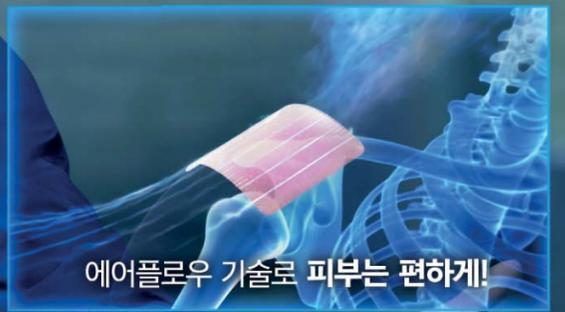
이기 위해 자체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했다.

AI 개인버서 애플리케이션(앱) ‘에이닷’ 내 AI 포토 서비스를 통해 SKT가 후원하는 선수들(Team SK·팀SK)과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AI 프로필’ 메뉴에 들어가서 함께 이미지에 담고 싶은 선수를 선택하면 선수들과 함께 찍은 것과 같은 AI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구남영 기자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코스피 변동성 ↑... “트럼프 재선 염두” vs “2분기 실적 중요”

바이든, 美 대통령 대선 출마 포기
코스피, 전 거래일비 31.95p ↓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익률 방어
2분기 실적시즌 도래... 반등세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변동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증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47포인트(0.16%) 하락한 2790.99에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31.95p(-0.98%) 떨어진 2763.51로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증시 약세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을 접한 아시아 증시는 그 여파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닷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16% 내린



코스피가 전 거래일(2795.46)보다 31.95포인트(1.14%) 내린 2763.51에 장을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28.72)보다 18.76포인트(2.26%) 급락한 809.96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스시스

39599.00로 장을 마감하며 4만선이 깨졌고, 대만 가권지수도 2.68% 떨어진 22256.99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과 ‘트럼프 대세론’은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순 있지만, 정황상 민주당이 트럼프의 승기를 꺾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미국 대선 직전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코스피(2795.46)는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같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배인 265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대선 국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기업의 ‘2분기 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추세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와 이벤

트는 시장의 투자심리, 수급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단기 등락은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효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이 계속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발인의 증시 영향력이 높은 구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주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2분기 실적에 더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오는 25일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23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테슬라가, 25일(현지시간)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도래와 함께 급락을 극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사투자자문업자·불법리딩방 제재 시행

금감원 ‘자본시장법’ 내달 개정 시행
정식업자에게만 양방향·유료 허용
네이버·카카오, 리딩방 단속 강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멤버십’ 운영 시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예정이다. 이에 ICT업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를 이번 법 개정에 발맞춰 강화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를 등록한 업

자에게만 허용된다. 무료 회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와 업무협약만으로는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정사유 및 직권발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제한이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ICT업계도 자체적으로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불법 리딩방’ 단속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을 통해 주식·가상자산 등 투

자 관련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하고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유료·무료 구별 없이 이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나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자사의 폐쇄형 SNS ‘밴드(band)’에서 투자 리딩 관련 해 강화된 모니터링 및 징계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되면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키움증권,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림’ 1기 성료

키움증권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림’ 1기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키움드림은 키움증권과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UIC)가 손잡고 만든 경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경제 교육을 목표로 한다. ‘키움드림’ 참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장원재·김종민 대표체제 구축

기업금융·관리에 김 신임대표 선임
기존 장 대표, S&T·리테일 맡아

메리츠증권이 김종민 메리츠금융지주 겸 메리츠화재 부사장을 신규 선임해 기존 장원재 대표와 각자 대표이사체제를 구축했다.

메리츠증권은 김 신임대표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관리 대표에 신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대표는 기업금융(IB)과 관리를, 기존 장 대표는 S&T(Sales & Trading)와 리테일을 각각 맡는다.

메리츠증권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 경영, 분야별 책임경영 체제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증권 양대 핵심사업인 S&T와 기업금융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사업인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각자 대표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을 맡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기업 대출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금융 전문가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다. 향후 메리츠증권 투자운용뿐 아니라 미래 성장 사업 발굴에도 매진하는 등 효율적 자본 배치를 통한 증권의 추가 성장 기회 마련에 전념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금융공학 전문가다. 자산운용, 상품 기획, 리스크 관리 등 핵심적 금융업무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S&T(Sales & Trading), 리스크 관리, 리테일에 집중해 회사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메리츠증권 S&T 부문장을 맡으며 주식·채권·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24시간 실시간 환전서비스’로 접근성 높여

환전거래금액, 전년비 309% 늘어

KB증권은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며 환전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KB증권은 KB국민은

행과의 협업 및 내부 시스템 개발을 통해 2023년 12월부터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는 환전 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 서비스로, 실시간 시장 환율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전거래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했고, 환전거래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대처에 제한이 있었지만,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제공 후 환전거래건수 및 환전거래금액이 대폭 상승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니즈를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환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일요일 제외)에도 환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다. /신하은 기자 godhe@

내비 빈자리 불박·로봇청소기로 채워... 시대별 전략 통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THINKWARE

링크웨어, 내비게이션 주력 설립
2014년 내비 매출 573억, 36%
작년 전체매출 4206억 중 1%로

블랙박스 매출 1888억 45% 차지
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 210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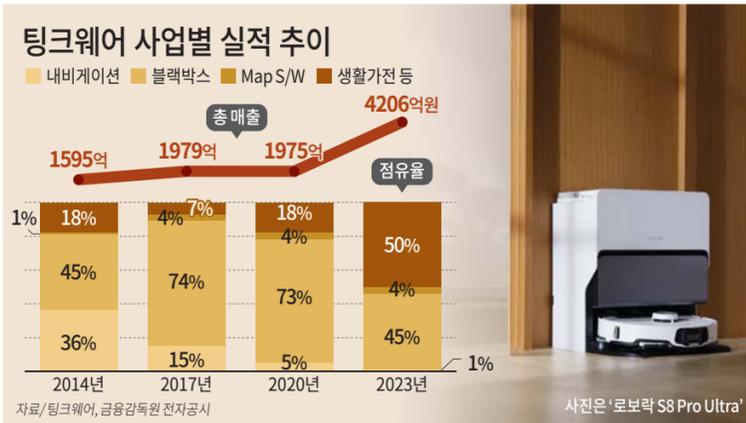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내비'가 사라지고 있다.

대신 블랙박스와 로봇청소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가전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변화를 빠르게 읽고 시류를 잘 타는 등 신사업 전환에 성공하면서다.

내비게이션을 주력 품목으로 1997년 설립된 회사 링크웨어 이야기다.

22일 링크웨어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당시 회사 매출은 15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 부문은 573억원으로 전체 매출 중 36%를 차지했다.

링크웨어를 태동시키고 한때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내비게이션 매출은 이후 26%(2015년)→19%(2016년)→15%



(2017년)→9%(2018년)→8%(2019년)→5%(2020년)→4%(2021년)→2%(2022년)로 비중이 점점 줄더니 지난해엔 1%까지 축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들이 출고 단계에서 장착해 판매하거나, 아예 스마트폰이 대체하는 등 내비게이션 수요가 줄어들 관련 회사들의 사업도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아울러 값싼 중국산 내비게이션의 공략도 국산 내비 수요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링크웨어 매출은 2017년 당시 1979억

원으로 2000억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이후 2021년 2253억원으로 200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그러다 2022년엔 336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206억원으로 사상 최고 매출을 올렸다.

블랙박스는 2014년에도 전체 매출의 45%(721억원)를 차지하며 주력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신규 차량 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택시도 블랙박

스 탑재가 의무화됐다. 이후 이같은 추세는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이어졌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2년 당시 15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2025년엔 6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 기간 평균 13% 가량씩 성장했다.

링크웨어도 블랙박스 시장 성장에 따라 2017년엔 전체 매출의 74%까지 비중이 올라가기도 했다.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했던 2022년엔 블랙박스만 2000억원 넘게 판매했다.

2021년 당시 차량 출고에 앞서 블랙박스를 탑재하는 비포마켓에 진출한 링크웨어는 BMW를 통해 80여 개 국가에 블랙박스를 공급하는 등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블랙박스 매출은 45%까지 줄었다.

내비게이션이 떠난 자리는 로봇청소기 '로보락'이 든든히 받치고 있다.

링크웨어는 앞서 자회사인 링크웨어 모바일을 통해 로보락의 국내 독점 총판권을 획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했다.

2020년 당시 300억원에도 그치지 못했던 로보락은 지난해엔 2000억원 넘게 판매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링크웨어는 로보락을 포함한 생활가전 부문 매출이 지난해 전체의 절반 가량인 약 2100억원을 올린 바 있다.

로보락은 한국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후 급성장하며 국내 시장점유율이 40~50% 정도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로보락 '로봇청소기 S8 Pro Ultra' 모델은 169만원에 달한다. 물걸레 자동 세척·건조, 물통 자동 급수, 먼지 자동 비움, 도크 자동 세척 등의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총 42종의 사물을 인식해 장애물을 회피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청소모드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올해 5000억원 매출에도 도전하는 링크웨어는 현재 지도(Map) 플랫폼 전문 계열사 아이나비시스템즈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링크웨어는 유비벨록스가 23.76%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이흥복 대표도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3高 속 상반기 中企 수출 25억 달러 증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

200일 우문현답 행보·성과 점검
“하반기 현장 뛰며 ‘현문중답’ 집중”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후 시작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를 107회 이어왔다. 이를 통해 총 287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티오더를 방문해 지난 200일 간의 우문현답 행보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했다. 티오더는 오 장관이 우문현답 간담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회사이기도 하다.

오 장관은 "기업이 우리의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선 종이문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2%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



지고 200일간의 우문현답을 이행해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러한 노력들이 힘을 더해 올해 상반기(1~5월 기준) 중소기업 수출은 '3고'의 지속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5억 달러 증가한 477억 달러를 기록했고, 벤처투자 실적도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증가하는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그동안 참여기업 중 8개사로부터 현장방문 후기, 하반기 중기부에 바라는 점 등 정책제언도 자유롭게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사 대표는 "2월 간

담회 이후에 지방청장이 직접 재방문하고 건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 중기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창업기업 B사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성장동력 확보,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존 국경과 수출에 제한된 지원체계를 넘어 글로벌화 애로 해소와 현지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등을 통해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 도 더 많은 현장을 직접 뛰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문중답'에 집중하는 중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공모

서울·대구·경북·광주서 동시진행

삼성전자가 공모전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22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C랩 아웃사이드'의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 대구, 경북, 광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해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AI ▲로봇 ▲IoT 디바이스 ▲디지털헬스 ▲콘텐츠&서비스 ▲소재·부품 ▲ESG 등 총 8개 분야에서 우수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C랩 아웃사이드'는 선발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삼성전자와 사업협력

기회, 역량발전 및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 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 중 삼성전자와 사업 연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해당 사업부와 비즈니스 미팅, PoC(개념 증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와 연계해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C랩 아웃사이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C랩 아웃사이드 컨설팅 프로그램은 상생협력아카데미의 SW·기구·인사·

재무 등 총 6개 분야의 임직원 전문가들이 1:1로 매칭돼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생협력아카데미의 멘토 전문가들은 3~4개월 기간 동안 코칭을 통해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들이 여러 부분에서 개선포인트를 찾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견련

회원기업 中 진출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 중견기업들의 중국 산동성 시장 진출 추가 모색에 나섰다.

중견련은 지난 19일 '중견기업-산동성 상무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산동성 진출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과 산동성 상무청 최홍광 부청장, 산동성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와이즈-윈과 세코닉스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산동성 상무청은 대외 무역, 외국인



(왼쪽 5번째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산동성 상무청 최홍광 부청장, 산동성 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부 기계경 수석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투자와 지역 투자·상업·소비 촉진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중견기업인들은 "산동성의 노동·환경 규제와 복잡한 세금 체계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의 적용 법규가 상이해 행정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

전했다.

산동성은 장쑤성, 광둥성에 이어 한국과 교역 규모가 큰 지역으로 유라코퍼레이션,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패션그룹형지 등 주요 중견기업을 포함해 현재 45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승호 기자

제주항공, 인천~가고시마 노선 재운항

매주 화·목·토 오후 12시40분 출발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5년 전 중단했던 노선도 복구했다. 제주항공이 오는 9월 14일부터 인천~가고시마 노선에 주 3회 일정으로 재운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3월 가고시마 노선을 중단한 바 있다. 중단한 지 5년 7개월 만에 재운항에 나서게 되었다. 가고시마는 '일본의 니폴리'라고 불리며 연중 내내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제주항공의 인천~가고시마 노선은 매주 화·목·토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2시40분에 출발해 가고시마 공항에 오후 2시30분에 도착한다. 가고시마 공항에서는 오후 3시3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5시4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 주요 간선 노선뿐만 아니라 ▲마쓰야마 ▲오이타 ▲시즈오카 ▲히로시마 등 지선에도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며 '일본여행=제주항공'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삼문화·전통주 등 한식 제대로” 파리·런던서 ‘한국의 맛’ 알린다

농식품부, 우수 한식당 3곳 지정
국산 식재료 사용 ‘삼식·지음·솔잎’
전통 활옷·소품 등 인테리어 접목
현지인·방문객 등 대상 한식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일 ‘해외 우수 한식당’에 유럽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파리에 자리한 삼식(SAM CHIC), 지음(JIUM)과 런던의 솔잎(Solli p)이다. 런던(영국) 소재 음식점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7월26일 개막)을 염두에 둔 발표이다. 이들 3개 음식점은 파리 현지인·방문객을 상대로 한식 홍보에 힘을 보태게 된다.

‘삼식’은 바비큐와 삼문화를 테마로 운영되는 한국식 구이 전문점이다. 된장 및 멸치액젓을 비롯해 복분자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박솔녀 장인의 전통 활옷과 한국적 소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지음’은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무청시래기, 건토란대, 초정쌀엿과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적 맛과 식기 사용, 서비스에서 현지인들 사이 호평을 받는다. ‘솔잎’은 한식을 모티브로 한 요리에 양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3일 파리·런던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3곳을 ‘K-미세린’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파리 소재 삼식(SAM CHIC) 한식당의 모습. /뉴스

의 조리법과 담음새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 한식 파인다이닝이다. 한국산 쌀, 매생이, 오미자, 잣, 다시마,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한국 전통주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정된 한식당 13곳의 경우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이들 13개 한식당은 ▲뉴욕(6곳)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꽃, 수길, 주아 ▲파리(5곳)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삼부자, 맛있다. ▲도쿄(2곳)의 하수오, 윤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품격 높은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류를 대표하는 한식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성장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외식산업 살리기… 할당관세 품목 확대”

송미령 장관, 외식산업 산·학 간담회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등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이 비용 증가 및 소비 둔화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입산 식재료 관련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을 비롯해 음식점업 외국 인근로자(E-9) 시범도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에서 외식산업 산·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식품 원료 할당관세(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 적용)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에 37개로 늘린다. 또 내년 말까지 커피 등에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한다.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도 10%포인트(p) 상향한다. 아울러 외식업체육성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정보, 굿네치킨, 이연FNC(한촌설렁탕), (주)보하라(남다른감자탕), 학계(경희대, 세종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림산업 종사자 재해감축 노력”

산림청과 안전문화 확산 등 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림청과 산림사업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사업은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 재해자 및 10명 내외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위험 작업이 많은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한 분야인 것.

업무협약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

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한다.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단과 산림청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

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SGI서울보증, 中企 대상 팩토링 공급 확대

‘中企 공급망금융 지원 확대’ 협약

SGI서울보증은 지난 19일 신한은행, 테크핀레이팅스와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을 돕고자 추진됐다.

SGI서울보증은 원활한 매출채권 매입을 위해 미회수된 매출채권 상환채무를 보장하는 상업신용보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 중인 매출채권을 매입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온라인 매출채권 팩토링 플랫폼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모든 팩토링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팩토링 시장에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출채권 부도위험을 판매기업에서 금융기관 관리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SGI서울보증은 테크핀레이팅스와 의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실시간 회계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더존셀티타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심성보 SGI서울보증 운영부 문장(왼쪽 두번째)과 이수한 신한은행 디지털 솔루션그룹 부행장(왼쪽 첫번째), 옥형석 테크핀레이팅스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및 상거래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관련 상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성보 SGI서울보증 운영부문장은 “SGI서울보증이 파트너사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주주, 고객, 사회,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신용 파트너(Best Credit Partn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대성무역, 하도급대금 미지급 3.6억 과징금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흡소핑의류 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흡소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

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전제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컨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交感의
架橋

WiaT

2024
7.26-7.29
호텔인터불고 원주
컨벤션 홀



2024 원주 인터불고 아트페어 Wonju Interburgo Art Fair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만나는 초대형 그림 마켓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제2회 원주 인터불고 아트페어'는 '교감의 가교'를 주제로 미술작가와 애호가들이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림장터입니다.

국내 신진/중견/원로작가들은 물론, 모나코, 체코,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만나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 진행되는 '이중섭 특별전'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아트포럼, 아트스쿨, 미술극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은 이번 전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것입니다.



주최 WiaT 조직위원회

주관 HB HOTEL INTER BURGO WONJU

후원 AFRAMBI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도로교통공단 TBN 강원교통방송

ChosunMedia 조선일보

협찬 aquapick 아쿠아픽

동성제약

부산시, 대학 4곳과 '글로벌대학 30' 최종심사 전략 수립

동아·동서·동명·신라대 총장과 비전·전략과제 점검·논의 예정 최종선정 위해 행·재정 지원 박차



부산시청.

글로벌대학 최종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 지역 4개 대학이 비전과 전략과제를 점검한다.

'글로벌대학30'은 대학 안팎과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대학으로,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부산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 지역 대학 4곳과 '글로벌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보고회'를 열고, 글로벌대학 본 지정을 위한 혁신 비전 및 전략 수립·발표에 나선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동아·동서대와 동명·신라대 4개 대학 총장과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최종 심사를 앞

두고 비전과 전략과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통합산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을 목표로 ▲에너지테크(전력반도체, 수소)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부산 헤리티지 등 4개 특화 분야를 지정하고, 지산학 연계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명대와 신라대 연합은 부산 미래 전략 사업을 견인하는 지산학협력패스 '디지털 혁신타운' 기반의 부산형 글로벌 연합대학을 제시하고, 각 대학 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해 특성화하고 과감한 학과 조정에 나선다. 동명대는 미래모빌리티(전기차, 디지털플랫폼), 신라대는 미래라이프(실버케어, 블루푸드)로 특성화된 통

합 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예비 지정 대학들이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글로벌대학이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외국 대학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제 발전 밑바탕에는 세계적인 대학들의 끊임없는 혁신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있다"며 "부산이 만들어낼 지산학 협력 기반으로 지역의 대학들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 지역에선 제1호 글로벌대학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선정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한수원 중소기업대출이자 4% 지원

경북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4%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수원의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활용해 기업당 10억을 융자하고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급한다.

전체 융자 규모는 1080억 원이며, 경북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주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10일 기업투자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주(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여주시

남만버스킹 퍼레이드 페스티벌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7일 여수해양공원 일원에서 '2024 여수밤바다 남만버스킹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버스커가 직접 참여한 대규모 퍼레이드로 여수의 밤을 더욱 밝힐 계획이다.

라퍼커션팀, 포니케임, 옐카라도팀 등 총 8팀이 출연,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남만버스킹 1번존(중앙선어시장 맞은편)에서 시작하여 해양공원 주무대로 이어진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진주시

'나이트 자술랭 투어' 참가자 모집

진주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식 기행 야간 자전거 투어인 '리버나이트 진주 나이트 자술랭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이트 자술랭 투어는 진주의 시원한 남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달리며 진주성,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등 대표 관광지를 관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진주의 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간 자전거 투어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이자 명품 자전거도시 진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투어에는 자전거 대여와 단체 라이딩, 관광지 관람, 진주 음식 도시락, 숙박, 버스킹 공연 등 알찬 콘텐츠가 제공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유튜브 '섬핑스페셜' 인기몰이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TV가 경남의 섬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시리즈 '섬핑스페셜'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섬핑스페셜 1편 칠천도 편은 지난 6월 공개 이후 조회수 151만 회로, 경남TV 개설 이래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섬핑스페셜' 시리즈는 지난해 경남TV 최고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한 'Wanna play 경남?' 시리즈에 이어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한 시리즈다.

/경남=이도식 기자

신안군 '버스공영제', 年 160억 경제효과 창원시, 내달 공원드론 배송서비스 시행

버스공영제 경제성 분석 검토용역 총 2333억 효과... 정성편익 미반영 민영제·준공영제비 효율적 운영



신안군 주민들이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1004번 노선 공영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으며, 민영제와 준공영제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버스공영제를 시행한 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이용객 수 증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지난 6월 30일 '버스공영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을 마쳤다.

국내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와 국외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9개 항목의 정량 편익성과 지표 분석한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으며,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3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및 '언론홍보 효과' 등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편익은 효과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버스 대당 7200만 원이며, 민영제를 하는 목포시의 경우 대당 약 8600만 원,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광역시시는 대당 1억 3700만 원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공원 3곳서 '나르고' 앱으로 주문

창원특례시는 8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공원 드론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

'드론으로 높고 넓게, 수요자 중심의 드론 일상화 도시' 구축을 목표로 창원특례시는 대원레포츠공원, 북면수변생태공원, 만달근린공원 인근에 드론 배달거점 3개소, 배달점 10개소를 설치해 드론 비행경로를 구축하고 드론배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드론배송 서비스는 음료수, 과자류 등 편의 물품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주문할 수 있다. 주문은 가칭 '나르고' 앱을 통해 이뤄지며 사용자는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배송지를 입력하면 된다. 드론은 지정된 배달거점에서 이륙해, 설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점으로 날아가 상품을 전달한다.

이번 드론배송 서비스는 시민들이 첨단 드론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드론배송을 통해 상품을 받아보는 경험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창원특례시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은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도전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드론을 이용한 도서지역 스마트 배송, 해양오염 및 재난안전 모니터링을 실증했으며 올해에는 공원 드론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 '최우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수요조사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울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지능형제조혁신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내 15개 기업을 선정하고 국비 4억 9000만원, 시비 8억원, 총 12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사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과 제조현장 지능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지능형공장 구축 완료한 기업 중 117개 기업 대상으로 구축 성과를 조사한 결과, 170%의 품질개선, 148%의 원가감소와 108%의 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영개선에도 성과가 확인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경북교육청,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 성료

1만5000여명 참여

경북교육청이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구미코(GUMICO)에서 운영한 '2025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행사에 1만5000여 명의 교육 가족들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박람회는 전국의 73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는 '대학별 맞춤형 진학 상담' 부스,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대입 상담', '의료계열 특강 등 7개의 맞춤형 수시지원 전략 특강', 대학

입시 선배들의 실질적인 대입 준비 경험을 공유하는 '학과별 멘토-멘티관' 등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북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경주와 구미지역에 1회씩 운영했다.

올해는 고 1, 2 학생들을 위해 전용관도 운영해 대입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 특히 경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120여 명이 대학별 상담 부스에 참가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도 진행했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저당·고단백 ‘그릭요거트’… 떠먹는 발효유 시장 성장 견인

시장규모 1년새 46% 상승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한 먹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릭요거트’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6년 국내 발효유 시장은 2조2498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액상, 드링크 등 다양한 형태의 발효 유제품 중에서도 떠먹는 요거트인 그릭요거트의 성장세가 주목된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큐(NIQ)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그릭요거트 오프라인 시장 규모가 약 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2% 성장했으며, 호상(떠먹는) 발효유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릭요거트는 수분(유청)을 제거해 낮은 당 함량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을 챙기는 MZ세대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릭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칼슘, 단백질 등 영양가가 풍부해 미국 헬스지에서 뽑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다.



스위트바이오의 그릭요거트(왼쪽부터), 풀무원요거트 그릭 시그니처 설탕무첨가 플레인 150g, 동원F&B 덴마크 그릭 오리지널.



각사

국내 오프라인 시장규모 667억 스위트바이오 ‘그릭데이’ 인기 작년 매출 261억, 전년비 45%↑ 풀무원은 ‘그릭 시그니처’ 출시 동원F&B ‘덴마크 그릭 오리지널’

국내에 그릭요거트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릭요거트 붐이 일어난 것은 2018~2019년경부터다. 웰니스를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됨에 따라 아침식사 대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거트 식단이 자리잡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서 브랜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 ㈜스위트바이오의 ‘그릭데이’는 대기업 제품이 주류인 국내 그릭요거트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임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 261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매출 180억원 대비 45% 성장한 수치다. 그릭데이는 인지도를 넓히고 브랜드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그릭데이 고’를 오픈했다. 지중해 그로서리 마켓 콘셉

트의 24시간 유무인 매장으로 그릭요거트뿐만 아니라 각종 굿즈, 식재료, 도서 등을 판매한다. 풀무원은 최근 ‘그릭 시그니처 설탕무첨가 플레인 150g’을 출시해 기존 제품 대비 1.8배 키운 그릭요거트를 선보였다. 150g은 소분할 필요없이 한 끼 식사 혹은 간식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양이다. 고물가 시대에 발맞춰 제품 용량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지를 넓힌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릭요거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쿠팡 클래스를 열고 그릭요거트를 활용한 샐러드와 식사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다. 동원F&B는 지난 4월 ‘덴마크 그릭 오리지널’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덴마크 그릭 오리지널은 유청을 두 번 분리하는 동원F&B만의 이중 유청 분리 공법을 사용해 질감이 더욱 꾸덕하며 부드러운 크림을 추가해 고소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남양유업은 지난해 ‘불가리스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만든 요거트 그릭’을 출시했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해 3월 급성장하는 그릭요거트 시장 트렌드에 맞춰 그릭요거트 전문브랜드 ‘요즘(YOZM)’과 협업 제품 출시를 골자로 한 협투협약을 체결해 제품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릭요거트는 현재 국내 발효유 시장에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주로 2030여성들의 구매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향후 성장기 아이들과 갈수록 필요한 시니어 연령층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국파빌리온 통해 전세계 K-상품 판매”

알리바바닷컴, 내달 8일 공식 론칭 국내기업 위한 전용 B2B 웹사이트 향후 5000개 이상 기업 진출 목표



앤드류 정 알리바바닷컴 부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성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중국 e커머스기업 알리바바닷컴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을 선보인다. K뷰티, K푸드 등 한국상품을 전세계로 유통하겠다는 것. 알리바바는 한국의 우수한 상품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접목한다면 양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알리바바닷컴은 22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매 가속화 지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알리바바닷컴은 국내 기업을 위한 전용 B2B 웹사이트인 ‘한국파빌리온’을 내달 8일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닷컴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향후 5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B2B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웹사이트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하거나 전통적인 오프라인 B2B 방식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도 쉽게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인 커넥트웨이브그룹의 플레이오토가 개발에 참여한 한국파빌리온의 일부 기능은 ‘한글-영어 동시 번역 API’ 기능을 제공해 국내 중소기업이 언어 장벽 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하고 한국 상품을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알리바바닷컴은 지난 3월 ‘AI 스마트 어시스턴트’와 ‘산업 리더 프로젝트’ 등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한편, 알리바바그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타오바오, 티몰, 라자다 등 플랫폼을 통해 34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 상품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 타오바오, 티몰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는 7600개에 달한다. B2B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가 2550개를 넘어섰고,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 기업이 총 61만 건의 상품 소싱 기회를 확보하고, 약 1300억원의 수출 거래를 달성했다. 특히, K-뷰티 제품은 지난 수년간 브라질(260%), 독일(253%) 및 인도(95%) 세계 국가에서 가장 높은 관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내 CJ제일제당 ‘비비고 시장’ 조감도.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파리에 ‘비비고 시장’ 오픈

방문객들에 K-푸드 선택 CJ제일제당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 ‘비비고 시장’을 열고 방문객들에게 K-푸드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프랑스 법인 설립에 이어 글로벌 최대 규모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비비고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유럽 식품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CJ그룹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7구 ‘메종 드라쉬미(화학회관)’에 만들어져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과 함께 K-컬처와 K-푸드 등을 알리는 ‘국가 홍보관’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CJ제일제당은 약 230㎡ 규모의 야외 정원에 한국식 시장을 모티브로 부스를 설치하고, 비비고 김치와 떡볶이를 김치만두·치킨만두·소불고기만두·불고기주먹밥·핫도그와 각각 곁들인 콤보 메뉴 5종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떡볶이와 핫도그 등 ‘비비고 K-스트리트 푸드’는 유럽에 아직 출시하지 않은 품목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에 처음 공개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관람객이 ‘비비고 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선 기자

“전주가맥축제서 ‘테라 라이트’ 만나요”

하이트진로, 25~27일 후원사 참여 하이트진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전주가맥축제’에 2015년부터 10년째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축제 기간 동안 신제품 ‘테라 라이트’를 앞세워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

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근 출시한 테라 라이트는 즐겁게 건강을 추구하는 ‘헬스 플레저’ 시대에 맞게 제로슈거에 ‘맥주다움’과 ‘낮은 칼로리’를 구현한 제품으로, 출시 2주만에 1000만병 판매를 돌파하며 맥주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인 가계맥주(가맥)를 모티브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기획돼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장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와 ‘전일감오’ ‘슬기네가맥’ 등 30여 곳 가맥집의 다양한 인기 가맥 안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축제로 다채로운 체험도 즐길 수 있어 매년 수만 명의 지역민을 비롯한 타 지역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가맥축제는 3일간 10만명이 방문해 맥주 약 8만 병이 완판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원선 기자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 블렌드 출시

동원F&B, 레몬 캐모마일 등 2종 동원F&B가 출시 10년차에 접어든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Take A'live)’에 허브티를 접목시킨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 블렌드’ 2종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 블렌드’는 상큼한 과일과 향긋한 허브티를 황금비율로 조합해 싱그러움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산뜻한 레몬에 캐모마일을 블렌딩한 ‘레몬 캐모마일’, 새콤한 자몽과 히비스커스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몽 히비스커스’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 블렌드’는 한 병에 레몬 10개 분량의 비타민C 700mg과 유산균배양액,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300ml 대용량 컵에 담겨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토종 브랜드부터 명품까지... 뷰티업계, 향수시장 열 올린다

에이피알 '포맨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배스 춘식이 고급 비누향... 여름철 데일리 적합

아모레퍼시픽 '구딸' 사업 강화 LG생활건강 '구찌 뷰티' 제품 집중

국내 뷰티 시장에서 향수 소비가 늘자 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차별화한 향수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자적인 국산 브랜드를 내세우려는 가운데, 해외 명품 브랜드를 앞세우면서 브랜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퍼퓸&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포맨트'를 국산 토종 향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이날 포맨트 인기 제품인 시그니처 퍼퓸 '코튼 허그'를 응용한 여름 한정판으로 '웨이브'와 '오션'을 내놨다.

이처럼 에이피알은 계절마다 포맨트 인기 제품을 재해석해 소비자 선택지를 늘려 왔다. 시그니처 퍼퓸 '코튼 허그'의 경우, 겨울 한정판으로도 세 차례 출시된 바 있다. 2021년 '백야', 2022년



포맨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배스 춘식이 에디션'

/에이피알

설명이다. 또 해당 제품 용기의 반투명한 재질과 아쿠아 색상은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3년과 2022년에는 시그니처 퍼퓸 '코튼 허그'를 응용한 여름 한정판으로 '웨이브'와 '오션'을 내놨다.

이처럼 에이피알은 계절마다 포맨트 인기 제품을 재해석해 소비자 선택지를 늘려 왔다. 시그니처 퍼퓸 '코튼 허그'의 경우, 겨울 한정판으로도 세 차례 출시된 바 있다. 2021년 '백야', 2022년

'첫눈', 2023년 '프로즌' 등으로 제품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지난 3월에는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널디 플래그십 스토어 1층에서 포맨트 브랜드 '단독' 팝업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또 에이피알은 포맨트 판매망을 온라인 자사몰 외에 CJ올리브영, 무신사, CJ온스타일, 뷰티컬리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포맨트가 국내

대표 토종 향 브랜드로서 국내 향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 일상과 정서에 맞는 제품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에이피알이 지난 2017년 처음 공개한 포맨트는 6년 만에 누적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월 발표하는 향수 브랜드 평판에서 국내 브랜드 중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K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이 포맨트를 에이피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향수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향수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에는 9860억 원 수준을 기록해 지난 2021년 7011억 원 대비 40.6%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니치향수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시장은 2021년 2380억 원에서 2023년 3940억 원으로 65.6% 커졌다. 올해 시장 규모

는 44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뷰티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니치 향수 브랜드 '구딸'로 향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일찍이 지난 2011년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지주회사 AGO를 통해 프랑스 명품 향수 기업 '아니 구딸'을 인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베스트 셀러에 중점을 두고 니치향수 특유의 특정 매니아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구딸에서 신제품 '쁘띠 셰리'를 출시하고 럭셔리 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과 협업한 기념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고급미를 강조했다.

LG생활건강은 향수 전문 브랜드보다 명품 브랜드 제품에 힘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은 '구찌 뷰티'의 국내 공식 판매처로 마케팅, 유통,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구찌 뷰티는 지난 1월 신제품 '알케미스트 가든 플로럴 벌스 오드 퍼퓸'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 향수에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100% 배출 탄소를 재활용한 것으로 자연친화적인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위커힐, 웹3 기반 '마을호텔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더블유닷엑스아이지' 위커힐 제공 NFT 기반 멤버십으로 광진구 내 20곳 매장서 혜택 받아

호텔 서비스에 스며들었던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위커힐 호텔앤리조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상품을 제시하면서 혁신과 도전으로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위커힐 호텔앤리조트는 블록체인 기반 웹3(web3) 프로젝트 '더블유닷엑스아이지(W.XYZ)'의 일환으로 '위커힐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번 '마을호텔 프로젝트'는 위커힐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서울 광진구 내 카페, 베이커리, 음식점 등 20곳의 매장에서 위커힐이 제공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멤버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다양한 매장을 블록체인 기반 멤버십으로 연계하여 웹3 기반의 오프라인 고객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링턴 카 드라이브 프로젝트'도 '더블유닷엑스아이지(W.XYZ)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링턴 카 드라이브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웹3 기술과 호텔 서비스가 접목된 이미지.

프로젝트'는 웹3 기반의 제도 중 하나인 탈중앙화 방식으로 개개인이 모여 직접 기획한 첫 프로그램 사례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실제 체험형 프로그램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기획해 운영하는 사례로 국내외 통틀어 최하다.

웹3을 방식이 접목된 위커힐의 '더블유닷엑스아이지(W.XYZ) 프로젝트'의 방식은 간단하다. 호텔 서비스 기획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호텔 서비스 내 실질 상품 구매를 통해 NFT를 발급 받는다.

참여자들은 발급받은 NFT를 기준으로 탈중앙화된 공간, 즉 DAO라는 가상

공간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원하는 호텔 서비스 기획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웹3의 기술이 호텔 내 서비스에 접목된 요인, 바로 수평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다. 웹3기술의 탈중앙화된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가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

위커힐 관계자는 "위커힐은 웹3와 결합한 이번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역과 동행하며 호텔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하고 미래 호텔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세엠케이, 신제품 기념 '드림팀' 응원 행사

NBA '플레이 라인' 제품군 출시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가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임과 동시에 농구 대표팀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한세엠케이는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가 '플레이 라인' 제품군 출시

를 기념해 미국 농구 대표팀인 드림팀 응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이번 '플레이 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기본으로 한 캐주얼 룩을 강조하는 제품군으로, 부드러운 착용감과 넉넉한 핏이 특징이다. 또 제품군은 '플레이 게임' 텍스트

를 활용한 단순한 아트웍으로 세련됨을 강조하는 동시에 에어로웜, 트리코트 본딩 등 보온성 소재를 활용해 기능성까지 갖췄다는 것이 한세엠케이 측의 설명이다.

신규 상품군 출시를 기념해 미국 농구 대표팀인 드림팀 응원 행사도 진행한다. 한세엠케이 측에 따르면 이번 응원 행사는 미국 농구 대표팀 경기를 팬들과 함께 즐기고자 기획됐다. /안재선 기자

CJ올리브영-DHL,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 이용

CJ올리브영이 세계적인 국제특송기업 DHL과 손잡고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 나선다.

올리브영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DHL코리아 본사에서 DHL코리아와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올리브영 글로벌 몰'에 대해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를 적용한다. 올리브영은 글로벌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가 K뷰티 상품을 주문하면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발송하고 있다.

'고그린 플러스'는 DHL이 지난 2023년 6월 선보인 친환경 배송 서비스다. 물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항공유(SAF)를 사용한다.

SAF는 폐식용유, 플라스틱 등 재사용이 가능한 비화석으로부터 생산한 항공 연료다. 일반 제트 연료와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80%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앞서 다 쓴 화장품 용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뷰티사이클' 활동도 펼쳐 왔다.

/이칭하 기자

W컨셉 "올 여름 유행 '링거티셔츠' 주목"

전년비 검색량 3배 늘어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올 여름 유행 상품으로 링거티셔츠를 꼽았다.

W컨셉이 20년 주기로 돌고 도는 유행에 197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아이템 링거티셔츠가 올 여름 재유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W컨셉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W컨셉의 티셔츠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링거티 관련 검색량이 3배나 늘었다.

링거티셔츠는 링거티로 불리며, 티셔츠 목과 소매 끝단의 링 모양 배색 디자인이 특징이다. 1950년대 목과 소매 라인 컬러 대비를 통해 운동 경기에서 팀을 나누는 데 활용되다가 대중에게 전파돼 1970년대 로큰롤 문화와 함께



링거티셔츠 모델 착용 사진.

/W컨셉

유행했다.

최근 링거티셔츠는 그래픽, 빈티지 프린트 등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출시돼 캐주얼, 스포티룩 등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어 MZ세대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W컨셉 측의 설명이다.

W컨셉은 빈티지 프린팅, 크롭 디자인, 니트 링거티 등 변형된 링거티셔츠 상품도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현대차그룹, '해피무브 더 그린' 본격 활동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친환경 리더 육성 프로그램 '해피무브 더 그린'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해피무브 더 그린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청년 봉사단 '해피무브'를 환경과 미래 세대에 맞춰 다시 만든 프로그램이다. '해피무브 더 그린'은 ▲환경 이슈 특강 ▲봉사활동 ▲친환경 랜드마크 탐방 ▲환경 CSR 아이디어 발표 등의 활동을 한다. /현대차그룹



한화-KAIST, '우주의 조약돌' 3기 운영

한화가 KAIST와 손잡고 청소년들의 우주 향을 꿈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Hanwha Space Hub)'는 KAIST와 공동 개발한 우주 교육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최종 합격자 30명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3기 교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됐다. /한화



세정그룹,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호 달성

세정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 중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의 지원 가구가 300호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300번째 지원 대상자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홀몸 어르신 가정으로, 곰팡이가 심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노후된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세정그룹



중기사랑나눔재단, 장애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장애 청소년 20명과 함께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찾아 문화 관람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봉사자와 장애 청소년이 1대1 매칭을 이뤄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관람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중기사랑나눔재단

대상

청정원, 브랜드고객만족도 3관왕

대상(주)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 '햇살담은'과 장류 전문 브랜드 '순창'이 '2024 제10회 브랜드고객만족도(BCSI)' 시상식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부문 1위를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4년 연속 1위에 선정의 영예를 안은 '햇살담은'은 청정원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최적의 배합·제조 기술인 '씨간장 숙성공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추장, 된장 부문 1위에 오른 '순창'은 뛰어난 맛과 품질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JW중외제약, 유덕종 교수 '성천상' 선정

창업자 성천 이기석 선생 철학 계승 유 교수, 의료불모지서 헌신·희생

JW중외제약은 JW이종호재단이 유덕종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교수를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지난 2012년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제정한 상이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이상은 JW중외제약창업자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JW이종호재단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왔다.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덕종 교수는 의사로서 30여년간 우간다, 에스와티니(에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등 의료 불모지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왔다.

유덕종 교수는 1984년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198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유 교수는 1992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1기 정부 과전 의사로서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유덕종 교수. /JW중외제약

의료 활동을 펼쳤다.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부속병원인 몰라고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유덕종 교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항생제, 수액 등 약품은 물론, 혈압계와 체온계 같은 기본 진단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낙후된 병원에서 유 교수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겪은 유 교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오랜 노력 끝에 그는 2002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

을 개원했다. 이후 난민촌과 빅토리아호수내 섬 지역 등을 방문하며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유 교수는 2005년에는 몰라고병원에 호흡기내과를 창설해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진 양성에도 힘썼다. 유 교수는 우간다에서 지낸 23년 동안 현지 의대생과 내과 전공의들을 교육해 2000여 명의 의사와 100여 명의 내과 의사를 배출했다. 유 교수의 제자들은 우간다 의학계 전반에서 활약하며 보건부장·차관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에티오피아 짐마에 위치한 짐마대학병원에서 8년간 근무하며 환자 치료와 의료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흡기내과를 신설하고 병동에 기관지 내시경 진료를 도입했다. 환자들이 350km 떨어진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 교수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호흡기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의료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24 JW성천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현대차, 'TCR 월드투어' 4라운드 우승

올해 두번째 포디움 정상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올해 두 번째 포디움 정상에 올라섰다.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 (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투어링카 대회인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버트 미첼리츠 드라이버와 함께 출전한 더 뉴 엘란트라 N TCR은 19~2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아울루 인터라고스 서킷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가 아닌



노버트 미첼리츠 선수가 7월 19~21일 열린 '2024 TCR 월드투어'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기뻐하는 모습

제조사에 경주차를 구매해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 대회로,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레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결정짓는다.

현대차 경주차가 올해 TCR 월드투어 지역 레이스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첼리츠 선수는 이번 레이스 우승으로 총 30포인트를 획득해 2024 시즌 드라이버 순위 1위를 유지했다. 함께 출전한 미켈 아스코나 선수도 총 22포인트로 5위에 올랐다. 두 선수가 속한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 팀은 총 383포인트로 팀 부문 종합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팀 바텐베르크 상무는 "TCR 월드투어 개막전인 이탈리아 레이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남은 레이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엘란트라 N TCR 경주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크계 대부' 김민기 前 학전 대표 별세

포크계 대부 김민기 전 학전 대표(사진)가 지병인 위암 투병으로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73.

김 대표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기중·고 시절 미술반 활동을 했고, 1969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 수업이 잘 맞지 않았던 그는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접어든다.

1970년 명동 '청개구리의집'에서 공연을 했고 이 당시 그의 대표곡



'아침 이슬'이 세상에 나왔다. 초창기 건전가요로 지정된 '건전가요서 울시문화상'을 받게 된다. 1972년 '10월 유신' 때 가수 양희은이 '아침 이슬'을 불렀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뒤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다. 추후 민주항쟁에서 군중들이 함께 부르는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기도 했다.

김민기는 1991년 학전(學田)을 개관하면서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재를 발굴한 한국 공연 문화의 산실로 평가받는다. 수많은 포크송 스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김광석, 여형스캐치, 박학기, 윤도현, 장필순, 권진원, 김형석 등이 이곳 무대에 섰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미영 씨와 슬하 2남이 있다. 조의금과 조화는 고인의 뜻에 따라 받지 않는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는 천안 공원묘원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곽재원 진에어 기장 응급환자 생명 구해

진에어 소속 한 승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를 구했다.

22일 진에어에 따르면 진에어 운항승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지난 6월28일 경기도 광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동 후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옆 코트에 있던 진에어 객원 기장은 곧바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조치에도 의식이 바로 돌아오지 않았고, 객기장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 사람과 함께 흉부 압박과 인공 호흡을 했다.

객기장은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환자를 인계했으며, A씨는 의식을 회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실은 이달 16일 A씨의 배우자가 진에어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는 "병원에서 남편이 심장 이상으로 매우 위험했으며 적절한 초기 대처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객원 기장은 "평소 회사의 안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었다"며 "덕분에 실제 상황을 보자마자 주저 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대성 기자 iunmids@

조명우 인하대 총장 플라스틱 저감 동참

인하대학교는 조명우 총장(사진)이 22일 환경보호를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릴레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일상생활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과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작했다.

조명우 총장은 김성찬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추천했다.

조명우 총장은 "인하대는 환경보호,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대학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인사

- ◆특허청 ◇과장 승진 △기계전자상표 심사팀장 강균상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청장비서관 김원태
◆동양생명 ◇임원(상무보) 승진 △최고위기관리자(CRO) 문일

고교생 50명 중 1명 '자퇴'... 총 2만5792명, 5년새 최고치

종로학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최상위권 학생들 중도 이탈자 급증 “검정고시 통한 대입 학생 많을 것”

지난해 고교생 50명 중 1명꼴로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사고·외고나 강남권 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증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5월 교육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전국 2379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5792명이 퇴학하며 학생 수 대비 2%를 기록했다.

이는 5년새 최고치다. 전국 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2만3812명 ▲2020년 1만4455명 ▲2021년 2만116명 ▲2022년 2만3980명이었다.

이런 흐름은 고교 유형을 가리지 않

고 지난해 대부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최상위권 학생들의 중도 이탈자 증가 추세가 일반고 등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

외고·국제고는 2022년 317명에서 지난해 366명으로 49명으로 15.5%p 증가했으며, 일반고와 자사고에서는 지난해 각각 1만7240명(11.1%p 증가), 378명(11.8%p 증가)이 자퇴했다. 반면, 특성화고에서만 2022년 7131명에서 지난해 7128명으로 자퇴자가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내 고교 학업중단 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강남(2.68%), 서초(2.68%), 송파(2.17%) 등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 3구가 최고였다. 이런 추세는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이 수능 응시 후 정시모집을 통해 입시에 성공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업중

단 후 검정고시, 수능 정시로 대입 전략을 수정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대입에서도 검정고시를 통한 대입 전략을 수립한 학생들도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외고·국제고생들의 학업중단은 이과 선호, 의대 쏠림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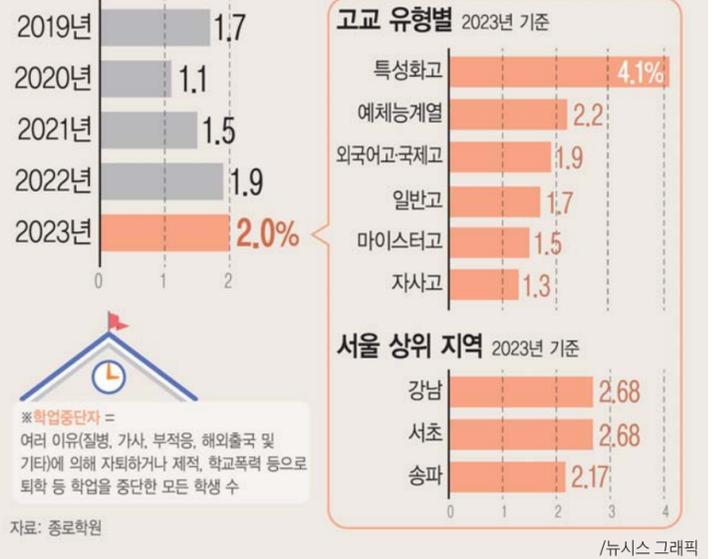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수는 9256명으로 공시 이래 최다치를 경신했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18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82명이던 지난 2019년보다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임 대표이사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고교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내신 불이익에 따른 학업 중단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규모 추이 단위: %

학교알리미(교육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에 올해 5월 공시된 전국 2379개 고등학교 기준



자료: 종로학원

/뉴스시 그래픽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방법 시설물 설치

화곡1동·신사동 등 주민 불안 지역에 범죄예방 인프라 마련 등 안전도 높아

서울시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안전 진단, 교통안전 활동, 특수 지역경찰대 업무 수행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2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강서구 화곡1동·관악구 신사동·서대문구 창천동·은평구 불광2동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방법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 사업은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지역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마련,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경위는 서울경찰청, 자치구, 경찰서, 용역사와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방향, 적절성, 보완점 등을 검토했다. 사업 대상지별 시민 의견 청취 및 반



안심펜스. /서울시

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총 16회 실시한 뒤 대상지에 지역·환경적 특성을 담은 방법 시설물을 구축했다.

강서구에는 안심지도, 도로표지판, 반사경 등 10종의 시설물을 총 532개 설치했다. 관악구엔 안심펜스, 미러시트, 모서리거울을 포함해 8종의 시설물 총 92개를 구축했다. 서대문구에는 담장 조명, 픽업박스, 도어클로저를 비롯해 9종의 시설물을 총 132개 설치했다. 은

평구엔 안내사인, 로고젝터, 안심벤치를 포함해 10종의 시설물 총 90개를 구축했다. 자경위는 각 자치구를 통해 방법 시설물들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경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진단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작년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회의를 총 603회 개최해 784개의 안전을 처리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 선정 및 해제, CCTV 설치 위치, 합동 순찰 방안,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사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범죄예방 진단팀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노후화된 범죄예방 시설물을 즉시 조치했다. 자경위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운영과 범죄예방 진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자경위는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적합한 암행순찰차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운영했다. 금년 자경위는 법규 위반행위 단속 활동을 연중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경위는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지역경찰대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돕고 있다. 자경위는 한강경찰대 구조요원의 직무역량 강화 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또 지하철경찰대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근무 환경 개선과 관광경찰대의 치안 대응 홍보·교육 비용 등도 지원했다.

자경위는 특수지역(한강, 지하철)경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서 돕고, 올해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정책' 재정 요청

“거주시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 유연성 등의 근

시교육청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간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시설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의 거주유형 중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체유형”이라며 “대부분 학생이 보호자와 주거지를 옮겨 농촌유학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거주 시설을 자치단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北이탈주민 자녀 학교적응 돕는다

국민은행·인천하나센터 등과 맞손

인천지방방법원은 법률상담, 법원 견학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맡는다. 또, 인천하나센터는 학습비 지원, 진로 및 법률상담 등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22일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천지방방법원, 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귀옥 인천지방방법원장, 이수진 국민은행 기관 영업본부장,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김민성 기자 kmmmm112@

오늘의 날씨

7월 23일 (화)
음력: 6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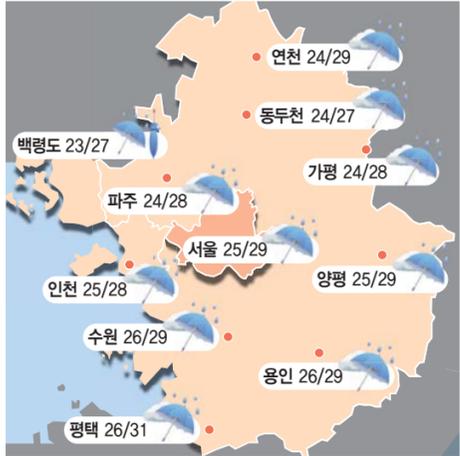
수도권 날씨
25~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24일부터 DDP에서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진 뉴스시

▲서울시·신한금융, 핀테크 혁신기업 6개사 선발

▲멧돼지 수렵 중 오인사격 증가...“야간엔 다경험 엮사 투입”

▲시흥 슈퍼마켓 살인 16년만에 잡혀 송치



▲배터리 공장 5곳 중 1곳 법 위반...위험물 초과에 소화설비 불량

▲‘집중호우 피해’ 경기·강원·충남·전남 특교세 25억 추가 지원 /사진 뉴스시



그릭요거트
떠먹는 발효유
성장 견인
니



Life

뷰티업계
국산·명품 등
향수시장 공략
L2



재생에너지 전환, 기부문화 확산... '따뜻한 자본주의' 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상반기 내내 증권사 브랜드평판 부동의 1위로 자리를 지켰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표도 빼놓을 수 없는 평가 부문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다.

◆브랜드 평판 '1위' 독점...압도적 상승세까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증권사 24곳에 대해 증권사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증권사 브랜드 소비행태를 알아낸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2월부터 7월까지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사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등이 분석됐다. 특히 증권사 브랜드평판 알고리즘 사회공헌지수를 강화하면서 금융소비보호 관련지표가 포함됐으며,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 ESG 관련지표와 오너리스크 데이터도 고려됐다. 최근 두 달을 비교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381만 7920에서 7월 498만440으로 약 30.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2위인 삼성증권과 3위인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13.38%, 18.00%씩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ESG경영의 내재화 작업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주요 평가사인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두 평가사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국내 증권사로 자리매김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그룹의 핵심 가치에 따라 책임, 투명, 윤리경영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문투자회사로서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높은 신뢰를 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초 시도로 ESG 선도...지속가능경영보고서·지속가능외화채권 등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 국내 증권사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2018년부터는 ESG 경영 성과를 담아 통합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한 '2024 통합보고서'에는 RE100 달성을 위한 선제적 이행 현황을 담은 기후관련 재무공시(TCFD) 리포트를 통해 공개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 미래에셋증권은 ESG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지난해 연말 미래에셋증권이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층 로비에서 '미래에셋증권 런치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빅데이터로 분석한 브랜드평판 '1위' 사회공헌지수 강화해 관련지표 상승 ESG경영 내재화로 사회에 가치 더해

업계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후변화대응, ESG 3대 핵심 영역으로

2018년부터 물품기부 캠페인 이어와 발달장애인 예술가 전시회·콘서트도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의미한다. 2021년 9월 국내 금융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고, 오는 2025년까지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해 있는 전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19년에 이미 업계 최초 지속가능외화채권(Sustainability Bond) 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투자와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는 ESG 경영 미션을 바탕으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금융을 지난 2021년부터 분류기준을 마련해 집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지속가능금융 4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ESG금융시장 조성에 일조하고, 환경·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약 33조 4000억원의 지속가능금융을 제공하면서 목표의 약 76.5%를 달성했다. 투자이사 결정 및 자문 수행 과정에서 환경 사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자 수립한 '환경 사회 정책 선언문(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Statement)'도 전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Climate Engagement)'을 ESG 3대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설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결국 투자자산 및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재무적 리스크로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전문기업인 진양에스엔지, 페타

파워와 국내 금융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장기구매 계약을 시작으로,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을 PV에너지와 체결하며 2023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전환목표의 26%를 달성하기도 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해...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확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물품기부 캠페인은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했고 의류, 가전제품, 도서, 학용품 등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수거를 통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했다. 총 121명의 직원들이 여러 물품을 기부했으며, 그 환산 기부금액은 2423만9200원에 달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매칭기부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터에 후원금을 기부했다.

매년 발달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립을 지원하고 임직원의 기부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사 로비에서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전시회'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 런치콘서트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 댓글 수에 따른 매칭기부, 자율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6명의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30점으로 센터원 로비에서 진행했으며, 20명의 발달장애예술인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에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연말에는 하트하트재단과 함께하는 런치 콘서트도 개최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기부행사에 임직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미래에셋그룹의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the@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 이미지.



▲대한축구협회 끝없는 잡음에...문체부 감사 결정
▲오타니, 4년 연속 30홈런...미일 통산 250홈런 눈앞 /사진 뉴시스

▲스키점프대를 거꾸로 올라라...'레드불' 400 평창 5년 만에 개최
▲프로야구 2~4위 모두 외인 교체...상위권 판도 바뀌나



▲프란치스코 교황,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휴전 촉구
▲'2024 젊은 건축가상'에 현승헌·김한중·조경민 선정 /사진 뉴시스

SAMSUNG

Galaxy Z Fold6 | Z Flip6

Galaxy AI ✨ is here



역대급 강력한 AI 폴더블 폰의 탄생

2024년 7월 24일 출시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